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227-235, 201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5.227

대학 교수의 생애사 연구

차현주
성균관대학교

A Life History Approach on a Professor Academic Activities

Hyeon-Ju, Cha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교수의 생애사를 고찰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삶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유아기나 아동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5년간의 교수경력을 가진 K교수를 대상으로 교수 자신의 목소리와 용어로 묘사하는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K교수의 심층면담, 저서, 이메일, 전화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여 컴퓨터로 폴더화하고 영역분석과 분류분석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K교수가 교수사회에 진입하게 된 동기와 계기에서는 피나는 노력과 가족의 지지 , 수어지교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입이후에는 연구, 교육뿐만 아니라 보직교수로서 대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년 이후의 삶은 전문가와 실천가로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K교수의'경험에서 교수역량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자기혁신', '강인한 신념과 뚜렷한 소명의식', '따뜻한 인간애와 실천적 삶', '유연한 사고방식과 교육적 열정' 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 주제어 : 생애사연구, 질적연구, 맥락성, 구술성, 내러티브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ife history of university professor and the meaning of their lives to provide career information to parents and teachers conducting childhood career education. professor K with 25 years of professorship was targeted for insides's view(emic), which describes the life story through the professor's voice and words, was used as the method of research and additional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or K, his writings, e-mails and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as electronically transferred and categorized for field and categor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tive for professor K to enter academic society was due to his utmost efforts, assistance of family, and his friend encountering. Also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he served as key role in research, education and as an appointed professor. After retirement, he is contributing to the society as a expert and practitioner. As such, 'continuous effort and consistent personal innovation', 'strong belief and clear calling', 'warm humanity and practical life', and 'flexible attitude and educational passion' were deducted from professor K 's professional capability.

• Key Words : Life history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Contextuality, Orality, Narrative

*Corresponding Author : 차현주(hjcha2016@gmail.com)
Received September 1, 2016 Revised October 4, 2016
Accepted October 20,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1. 서론

유아나 아동기 진로를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전문직은 꾸준한 인기로 선호하는 추세이고 그 중에서도 대학교수는 희망 직업 1순위이기도 하다. 2007년 5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채용 관련 분야 홈페이지에서 직장인 2231명을 대상으로 "가장 매력적인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교사·교수'가 1위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학생 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3.7%가 10년 뒤 희망직업으로 대학교수를 꼽았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교수로 진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유아나 초·중등 교사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1]. 이런 이유로 대학교수에 관한 교수역량을 경험적으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수 또는 대학교수(大學敎授, Professor)는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지만,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학문을 연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교수는 학자로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다.

하지만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연구의 수는 많지는 않지만 국내외에서 다양한 접근에서 이루어졌음에 놀라게 된다. 세계의 대학교수에 대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비교연구[2]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도 교수의 일과 연구 환경 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종종 이루어졌다[3]. 정량적인 대규모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성적인 접근을 활용한 교수대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교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나 초등 교사의 삶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종전의 연구물들이 외부자적 관점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삶의 경험을 피상적으로 다룰 뿐 밀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교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학사회에서 전문적인 삶의 경험을 지닌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현장은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인 접근방법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대학교수의 삶에 대한 연구는 양적분석만으로는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성적인 접근을 활용하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인 생애사적 연구[4]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대학교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시간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생애사는 경험에 대한 역사이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사는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지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현재적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해석하고 정당화한다. 반대로 과거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생애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얽혀있다고 볼 때, 과거의 삶인 자신의 생애사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뒤돌아보고 있는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물론 생애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넘나들면서 연결되고 있는지 즉 생애에 걸쳐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의미이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의미가 생겨난다. 경험이라는 것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5]. 따라서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생애사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한 것을 기억해 낼 즉, 경험을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의미를 다시 만들어낸다. 또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의미는 다시 만들어진다.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나 말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평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구성

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으로 생애사를 볼 때 생애사의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K교수의 삶의 경험을 통해 대학 교직 이전과 대학 교직 이후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들을 K교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생애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나 아동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여 교수역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행동의 문화적 맥락을 중시하고,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7] 일반적으로 생애사의 특징으로 이야기(narrative), 주관성(subjective), 시간성(temporality)을 지적하면서 생애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관성과 시간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며, 개인의 회상을 통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의 삶에 대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포함한다[6].

이와 같이 생애사는 한사람의 삶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요 그 산물이다. 생애사는 삶의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한 사람의 정치, 경제, 종교 등에 초점을 맞추면 각각은 정치 생애사, 경제 생애사, 종교 생애사가 된다. 동일한 논리로 교육 생애사(educational life story)는 한사람의 교육적 생애에 대한 서술적 기록이다[8].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대학교수의 삶을 조명하게 되면 대학교수의 대학 교직이전의 개인적 경험에서 대학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대학 교직에 입문하게 된 원동력 그리고 대학 교직에 입문하여 오랜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어떠한 교육적인 경험과 역량을 축적시켜가며 변화· 발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때 교수자의 지식, 윤리, 감정, 생각, 기억 등을 공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수행동의 바탕이 되는 맥락 및 사회적 규칙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회고를 중심으로 사실성에 바탕을 두면서, 심층면담에서의 '현재성'과 '구술성'을 최대한 살린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대학 교직 입문 이전에 대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동기와 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입할 수 있었는지, 대학 교직 재직 시기의 교수역량이 어떻게 계발되었으며 평소의 가치관과 신념이 교직생활에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 삶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어느 대학교수의 생애사 연구이므로 Spradley[12]가 제안한 연구대상의 요건에 따라 충분한 교수생활을 거쳐 보직교수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직 생활을 25년 간 근무하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K교수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 of Professor K

Category	Contents
Sex	Male
Age	76
Academic Background	Ph. D in USA(Economics)
Teaching Experience	25 Years
Work Career	• Professor(10 Years)
	• College Dean(15 Years)
Activity After Retirement	• Research • Teaching • Community Service

K교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비교적 길고, 퇴임 이후에도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를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를 통해 대학교수의 역량과 가치관을 밝히려는 본연구의 목적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교수는 현재 76세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대학에서 근무하였다. 대학에서 10년간의 일반교수 생활을 거쳐 학과장, 단과대학장 등으로 재직한 보직교수로서의 경력은 15년이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술연구와 학술서 집필, 각종강연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생애사 연구는 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이용하였고, 연구자료, 직접 저술한 저서 등을 참고하였다. 심층면담은 2012년 9월 15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초기면담은 연구대상의 경험과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살아온 시기별로 이루어졌고, 면담도중 연구주제와 관련된 특정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면담을 하였다. 면담초기에는 비교적 비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고, 점차 면담이 반복되면서 질문을 구체화・세분화시켜 구조화된 질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녹음한 자료는 면담이 끝난 뒤 전사를 하여 자료 분석 과정은 Zilber의 생애사 자료 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통합적 형태분석(holistic-form approach)은 생애사의 내용 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전체적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은 말 속에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의 조직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사 서술의 서사 구조를 탐색한다. 이런 원리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생의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지의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다. 한 개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그 동안 살아왔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객관적인 시각과 드러나는 현상에서 얼마나 잘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인지가 해설적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3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전화, 문서, 이메일, 관찰 등을 통한 다각도 접근법(triangulation)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인 K교수에게도 확인을 받았고 K교수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분석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하며 검토 작업을 거쳤다. 협의를 통한 비판적 검토의 과정은 면담내용 등을 토대로 전체적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야기의 조직 원리에서 의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등 다차원적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자료 및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와 내용을 종합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Procedure and Contents

Category	Contents
Period	Sep. 15, 2015~ Dec. 1, 2015
Participant	A professor
Methods	Educational Life Story
Collection of Data	• Interviews • E-mails • His Writings
Data Analysis	• Holistic-Form Approach • Discourse Analysis
Reliability of Data	• Triangulation
Results	• Definition of Meaning of the Life

2.4 연구 윤리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에서 지켜야할 윤리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연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연구를 위하여 희생을 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위해, 학자에 대한 예우, 진솔한 대화, 연구 참여자의 진정성을 공감하는 것,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에 관한 이해증진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셋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대상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사실성과 연구 참여자의 참여도를 높인다.

3. 연구결과

K교수의 생애를 대학 교직 입문이전의 시기와 대학 교직 입문이후의 시기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교수의 직무와 교수역량과 가치관을 그의 생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3.1 대학 교직 입문이전

3.1.1 소중한 만남

마틴 부버는 나와 너와의 참 만남을 예견했듯이 K교수에게 있어서 U와의 만남은 서로의 인생에 일취월장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참 인연'이라고 하였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경제연구소에서 만난U와의 인연이었어요. 사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B대학교에서 있었던 C학회였어요. 그

런데 대학원을 마치고 경제연구소에서 가보니 그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U와 함께 연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일취월장하게 되는 소중한 만남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는 선한 영향력 그 자체이었죠(K교수 면담에서)』

3.1.2 간절한 성취동기와 한길 파기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이다. 성취동기가 높으면 학습과제 수행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취동기가 낮으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과제수행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생존과 생활을 위한 간절한 성취동기와 강한 의지로 한길을 파는 것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지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목이 마를 때의 물 한모금은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 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함일 것이다. 그 간절한 성취동기로 한길 우물을 판 것이 결국, 대학사회에 진입하는 결정적 역할 하였다고 K교수는 말하였다.

『 나는 나만의 자유스러움 속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어요. 일평생 연구생활을 할 만한 경제연구소라는 직장이 있기는 했지만 한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유학을 떠나게 되었던 거지요. 유학생활 내내 나는 대학교수의 생각만 했어요. 매 시간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대학교수가 되면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생각도 했고, 교수가 내 주는 연구과제나 학술자료를 틈틈이 파일로 담아서 보관하기도 했어요. 오로지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연구할 생각만 했어요.(K교수 면담에서)』

3.1.3 친구의 긍정적인 자극

『채근담』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것은 마치 규중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우선 출입을 엄격하게 하고 친구 사귐을 신중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한번이라도 나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깨끗한 밭에 부정한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의 영향력은 어느 발달단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어린시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교수의 삶에는 늘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있어 때론 지적 자극으로, 때론 지적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생산적인 만남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간접적인 동기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서로가 격려하여 해외 유학을 갔다 오니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입하게 되었어요.그러니까 대학사회에 진입하게 된 동기도 친구들의 자극받아서 유학을 갔다 온 것이 동기가 되었어요.(K교수 이메일 면담 내용에서)』

3.1.4 교직 취득까지의 노력과 가족의 지지

어느 인생에나 고충과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고충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일 것이다. 어느 나의 지인은 이렇게 말한다. 위기와 고충을 이겨내는 자만이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위기와 고충이야말로 내공을 쌓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위기와 고난은 K교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기회였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면면히 그의 내공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승화되었다.

『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내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내가 만학도로서 공부만 하다 보니 경제활동은 가족의 지원이었어요.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여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5년 만에 귀국할 수 있었어요. 다음 해 1월 Y대학교에서 임용당시 젊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Y대학교로 오게 되었어요. (K교수 면담에서)』

3.2 대학 교직 입문이후

3.2.1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성장

이 시기는 대학교수로서의 학문적 성장과 교육의 성숙기이었다고 한다. K교수는 최신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연구소 시절 틈틈이 쌓아둔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소양이 미국

박사과정 내내 지도교수의 칭찬과 동기 학생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고 전임취득 이후에는 연구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즐거움이 컸다는 사실이었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 연구와 교육을 즐기는 성향이야 말로, 학문적 성장을 가속화된 원동력이었고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는 주로 시청각 기구로 오버헤드를 사용하였지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한국의 교수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원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어 원서 강독을 많이 해주었지요. 연구도 이제는 미국에서 배운 대로 연구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연구설계 통계적 자료 분석 등 최신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술지에 게재 하였어요. 그리고 출판사의 요청으로 교재를 집필하기도 하였답니다(K교수 면담에서)』

3.2.2 검증된 교수로서 승진과 끊임없는 자기혁신

대학 진입한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은 경력으로 주요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을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재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시절에 K교수는 홀연 단신으로 주요보직에 발탁되었으며 그 발탁요인은 전문성과 개혁성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정년퇴임 할 때까지 줄곧 보직교수를 이어간 원인이었으며 대학의 혁신적인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성찰의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보직 발탁은 관리자로서 덕망과 전문성 그리고 연륜이 발탁의 원인이었던 같아요.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연구하고 봉사하는 교수라는 이미지가 주요보직으로 선임되는 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늘 성찰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보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죠.(K교수 이메일 면담에서)』

3.2.3 보직교수로서 번뇌와 보람 그리고 전문가의 길

보직교수는 관리자의 길이다. 관리자의 길에도 늘 애환과 갈등 그리고 보람이 뒤따른다. 보직교수는 대학을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에 책임과 권한이 뒤따르는 직무인 것이다. K교수는 15년 동안 각종 보직교수에 임용되었다는 것을 그의 집필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강직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였고 그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추진력은 대학발전에 기여함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교수는 암울했던 1980년대에 보직교수로 출발해서 대학의 혁신을 강조하고 대학의 질을 제고하는데 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왕성한 보직교수의 활동 역시 그만의 독보적인 교수역량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생활신조에서 보면, K교수는 공신력을 강조한다. 공신력은 전문성과 신뢰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K교수는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보직교수로서 늘 공신력의 트레이드마크 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대학교수를 하던 80년대와 90년대는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대학의 권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는 기쁨이 컸어요. 특히 많은 학생들과 교수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건 그 당시 최첨단기계인 컴퓨터 잘하고 외국교수들과 소통이 잘 된 점이었어요. 또한 영국 O대학의 연구교수로서 정부연구비로 다녀오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K교수 심층 면담 내용에서)』

3.2.4 교직에 대한 교육관과 교수역량 강조

K교수에게 있어서 교직에 대한 교육관과 교수역량에 대한 생각은 강건하였다. 그는 교수역량에 대하여 지적 능력과 창의력 , 탐구력과 연구역량을 손꼽고 있다. 즉, 학문적 소양과 지적 성숙인 창의력과 탐구력을 강조한다. K교수는 교수역량을 부단한 자기혁신과 끊임없는 노력이었으며 이것은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는 단순한 교수자의 역할을 떠나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연구자의 역량과 자격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교사와 차별되는 점입니다. 교수는 지식의 생산(production of knowledge), 지식의 보급(dissemination of knowledge), 지식의 적용(application

of knowledge)에만 몰두하는 삶을 사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research)하고, 그 생산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교육(education)에 충실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그 지식을 사회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지식의 적용자, 지식의 활용자로서 사회봉사(social service)에 공헌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역량은 기본적인 지적능력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겠지요.(K교수 심층면담 내용에서)』

3.3 정년퇴임 이후

3.3.1 삶의 변화와 제2의 도약

정년이후 대학에서 석좌교수로서의 직위를 부여받았으나 K교수는 본격적인 사회봉사의 길에 들어선다. 오랜 세월동안의 교수로서 경륜을 바탕으로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제협력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어 한층 탄력적으로 활동하고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교직 생활 내내 대학에 충실했던 만큼 정년 이후의 삶은 K교수에게 있어서 삶의 또 다른 제 2의 도약기인 것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년퇴임하고 나서 그동안의 내게 부여 받았던 선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까지 축적해 온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국제협력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직교수로 대학에서 충실하다보니, 지식의 생산자로서 연구에 더 많은 정력과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지식의 보급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일반교수에 비해 제한된 시간이었고 보다 많은 학생들을 사회지도자로 양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아있어 정년이후의 삶은 사회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히, 나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자본과 노동과 시장이 어떻게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지식경제학은 정보의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부를 창출해 가느냐 하는 것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 영역을 완성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K교수 이메일 면담에서)』

3.3.2 다시 태어나도 대학교수의 삶을!

생애의 주기를 말할 때, 흔히 인생 3막 3장으로 말하던 것을 요즘은 인생 7모작 심지어는 인생 8모작이라고 하기 까지 한다. 그만큼 삶의 존재의 이유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직업의 중요성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레빈슨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사계절은 변화와 안정의 순환과정이라고 한다. 지나온 과거를 심오하게 재평가해보고 새로운 시대를 전환해 가야 하는 성인 후기에 있는 K교수에게 대학교직 입문 이전이나 대학 교직 생활 내내 연구와 교육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정년퇴임 이후의 삶은 연구, 교육. 사회봉사를 통합하는 사회공헌의 완성기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정신적 자유가 무한히 허용되며 높은 가치를 창조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교육하고, 사회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 문이지요. 예전 대학교수 지망하던 시절이나 임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좌절과 후회는 없었는데 정부기관의 장이 될까 말까 한때 고민한 적은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걸어온 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깨끗한 명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삶을 살 거예요.(K교수 심층면담 내용에서)』

3.3.3 대학교수에게 필요한 역량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유아나 아동기 진로를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대학교수에게 필요한 역량은 첫째는 곧고 강직한 학자로서의 기품이라고 K교수는 말한다. 둘째는 지적능력과 창조적 사고능력을 겸비한 연구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늘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를 손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사회에서는 곧고 강직함이 교수역량이 됩니다. 학생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하니까요, 또한 대학교수로서 필요한 역량은 첫째 지적 능력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창조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K교수 심층면담 내용에서)』

4. 결론

본 연구는 어느 대학교수의 대학 교직 입문 이전 , 대학 교직 입문 이후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삶으로 3단계로 나누어 생애적 변화 과정을 심층면담,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서 탐색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교수의 대학 교수 입문 이전을 살펴보면, 교수사회에 진입하게 된 뒤안길에는 피나는 노력과 가족의 지원 그리고 수어지교의 만남이 있었으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끈기와 의지로 어떤 일이든지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하고 교육하고 사회봉사하는 교수자의 직무가 적성과 성향에 맞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즐기며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 교수 입문 이전의 경제연구소에서 갈고 닦은 연구 역량은 미국유학 시절에박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튼튼한 주춧돌 역할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대학 교직 입문 이후에는 연구, 교육 및 사회봉사를 본격적으로 가속화 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같은 K교수에 대한 가족의 지원과 지지가 유학시절 동안 어려움 없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유명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대학 교직 입문 이후에도 줄곧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또한, 해외박사로서 최신 연구방법론을 펼치는 한편 대학교수로 입문한지 10년도 채 안되어 교내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강직한 교수로서, 교외에선 활발한 학술활동과 혁신적인 활동으로 주요보직에 전격 발탁되어 그 후 15년 동안 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그는 대학에 최초로 벤처산업을 유치하여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한 바 크기도 하였다.

셋째, 정년퇴임 이후의 삶은 대학 교직 생활 25년간의 대학교수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교육전문가와 실천가로서 지속적인 학생들의 롤모델(Roll model)으로 제 2의 도약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특히 제 3세계의 가난한 국가를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과 제 3세계를 연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적 소명의식으로 사회공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를 고민하는 성인 후기에 해당하는 인생의 통정기(자아통합기)에, K교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인생의 통합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로써 한 대학교수의 대학 교직 입문 이전 , 대학 교직 입문 이후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K교수의'경험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자기혁신', '강인한 신념과 뚜렷한 소명의식',' '따뜻한 인간애와 실천적 삶, '유연한 사고방식과 교육적 열정' 라는 의미가 도출되어 교수역량의 핵심구인이 발견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 자료는 교육활동의 하나의 표본으로 유아기나 아동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J. J. Son, Y. J. Oh, "A Study on the Academic Life of Local Private University Facult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24, pp. 97-125, 2006.

[2] S. H. Lee, "The world's University: They who are, What are people?," Seoul: Munidang Publishing Co, 1995.

[3] J. J. Son, "Academic Labor Process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 the 1990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3 No. 2, pp. 135-164, 2003.

[4] E. J. Bae, "The meanings of latest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11 No. 2, pp. 1-27, 2008.

[5] Bruner. J. The culture of education . Harvard University. 1986.

[6] C. I. Yoo, "Problems on Data and Text = Life History and Sinsetareong," The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Vol. 22, No. 1, pp. 301-308, 1990.

[7] Y. S. Choi, "Collecting Qualitative Data: A case study of the life of gratitude,"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2, No. 2, pp. 1-22, 1999.

[8] Y. H. Jo, "Qualitative Research: method & cases," Seoul: Kyoyookgwahaksa Publishing Co, 1999.

[9] Gill-Young Noh, "Various Factors and Types of Kindergarten Teachers Development in Korea: A

biographical perspectiv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10] Martel, D. Gagnon, J .& Tonsignant, M, "Physical Education, Tearcher's and Students' Views of Injustices in The Gymnasium, Avante, Vol. 8, No. 1, pp. 55-68, 2002.
[11] Zeichner, K, "The new Scholarship in teacher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Vol. 28, No. 9, pp. 4-15, 1999.
[12]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13] Carlson, T. B, "We hate gym: Student alien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 14, pp. 467-477, 1995.
[14] Hyun-Sook Chung, Jeong-Min Kim, "Design of Semantic Models for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Convergence of Ontology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127-134, 2015.
[15] Ji-yeun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16] H. J. Keum, "The basic theoretical research for a practice of university faculty member's teaching refle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57-63, 2016.
[17] B. J. Kim, J. W. Kim, "A Study on a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Life Competen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173-180, 2014.
[18] Young-eun Kim, Hyun-Jung Lee, "A study on undergraduate students' self-growth experiences in a counseling skills training co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15-328, 2015.
[19] Kyeung-Ae Jang, Hee-Su Lee , "Factors Affecting the Self Esteem of a Convergence Dental Hygieni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77-186, 2015.
[20] Su-Young Lee, Mi-Sun Youn, Youngeun Kim, "A Study on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43-56, 2015.
[21] So-Ra Moon, Myung-Chul Kim, Min-Su Lee, Nam-Jae Kim, "Study on Attitude of the Elderly among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through social science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57-163, 2015.
[22] Tae-Seog Jeong,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7, pp. 183-188, 2016.

저자소개

차 현 주(Hyeon Ju, Cha)

・중앙대학교 교육학(학사)
・성균관대학교 예다학(석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수료
・2007년 ~ 현재 : 한국글로벌인재개발연구원장

<관심분야> : 부모양육, 인성교육, 심리측정, 유아영재판별, 유아인성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족정책